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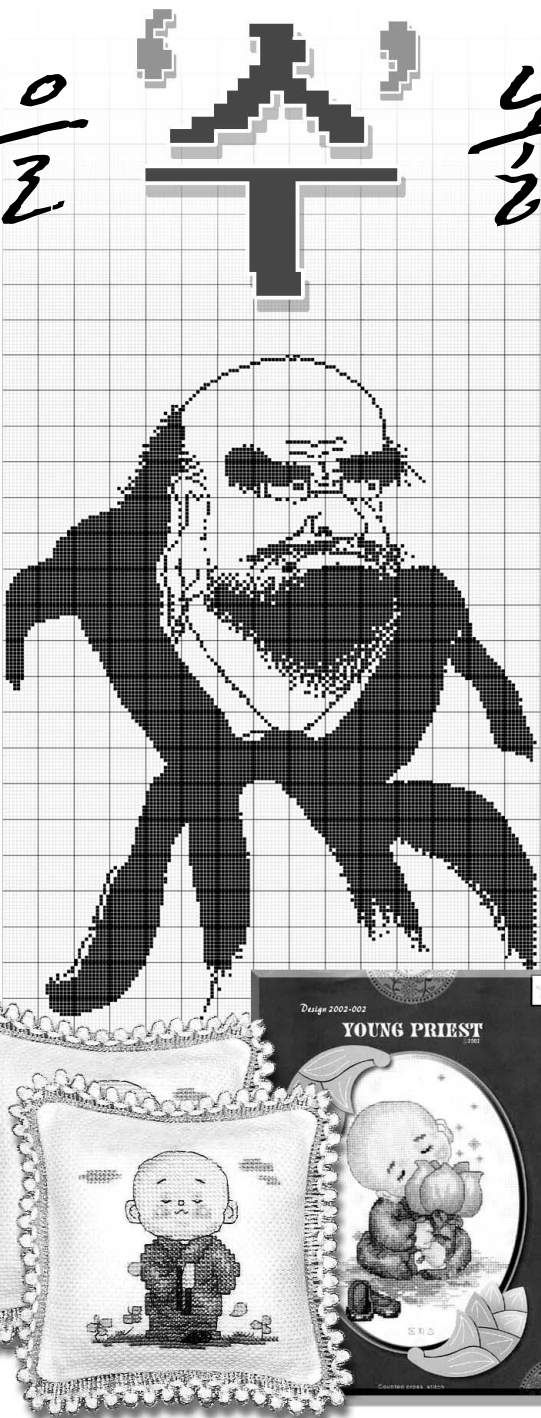
부처님을 수놓으세요

“불교문양 이용 십자수 도안 다양
초보자도 10분 강습후 곧바로 시작
인터넷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사용”

“부모님께 달마도 십자수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도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요즘 십자수 동호회 ‘자수향기’ 홈페이지(www.crossnet.co.kr)에는 부모님이나 스님,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달마도나 동자승 등의 불교관련 십자수 도안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글이 끊이지 않는다. 십자수란 디자인이 도안된 면사에 열십자(十) 형태로 수를 놓아 완성하는 유럽 자수로, 우리나라에서는 4년 전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재료가 수입되면서 붐이 일기 시작해, 이제는 실내 취미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네마다 십자수 전문점들이 문을 열 정도로 십자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교의 다양한 문양을 이용한 십자수 도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십자수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수사랑(www.sulove.co.kr)이나 품품자수(www.comjasu.com), 십자수 샵(www.sipjasushop.com) 등에서는 20여종의 불교관련 도안을 판매하고 있다. 달마도와 동자승 도안이 10여종 씩으로 가장 많고 불살이나 관음보살, 승무 등의 도안도 100원~3000원 선에 구입할 수 있다. 시중에 원하는 도안이 없다면 ‘자수향기’ 홈페이지에서 도안프로그램(PCstitch 6.0)을 다운 받아 직접 도안을 만들 수도 있다. 프로그램 사용법



◇십자수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불교관련 도안들. 사진제공=자수향기

과 그림이나 문구 등을 십자수 도안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렇다면 십자수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십자수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복잡하고 큰 작품이라도 기본

스티치 4가지로 도안에 표시된 색실로 수를 놓으면 완성된다. 초보자들은 집 근처 십자수 전문점에서 10분 정도 강습을 받으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티치가든(www.stitchgarden.co.kr)이나 아트십자수(www.sipjasu.co.kr), ‘자수향기’ 등의 홈페이지에서 십자수 기본 스티치와 세탁 및 건조 방법, 도안 보는 법, 실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더 다양한 십자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동호회의 정기 모임이나 백화점, 복지관 등의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십자수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십자수 전용천인 아이다와 수실, 바늘, 도안이다. 아이다는 십자수 전용 원단으로 창살모양으로 나 있는 구멍을 이용해 수를 놓을 수 있도록 고르게 짜인 천으로 짜임이 촘촘하고 느슨한 것이 있으며, 초보자는 느슨한 것이 편하다. 수실은 면사를 주로 쓰며, 자수용 바늘은 끝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며 귀가 큰 ‘태프스트리 바늘’을 사용한다. 이밖에 수틀이 있으면 놓기가 수월하다.

가격은 한두 가지 도안을 놓을 수 있는 천이 2천~6천원, 실 한 묶음에 4천원, 바늘 1백50원~200원, 수틀이 8천원 선이다. 재료는 십자수 전문점이나 대형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장충동 서울랜드(02-2264-4252)는 1만여종류의 십자수 디자인을 갖추고 관련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수향기”를 운영하는 천선정(27) 씨는 “십자수를 하면 인내심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발달시킬 수 있다”며 “불·보살문양 십자수를 한판한판 놓다보면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그만큼 정성도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소설가 남지성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남편의 경쟁의식

자식 3남매가 경쟁심으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서 너무도 괴롭다고 하는 40대 중반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부인은 몹시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권유로 절에 나간지 1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의식을 치르고, 스님 법문도 세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친구가 절에 가지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따라 가는 것은 절에 가면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예요. 향냄새가 가득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부처님이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힘들지?’ 하고 묻고 계신 것 같거든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조그만 건축자재상을 하고 있는 남자와 중매 결혼을 한 부인은 외

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치 바다위에 떠 있는 세 개의 무인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리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부인의 말이 이해가 잘 안돼서, 서로 상처가 크도록 조종을 당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조종을 당했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아버지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져 울을 느끼면서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결혼 한지 3년도 안돼서 둘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과 사별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5년을 혼자 살다가, 3남매를 둔 상처한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6살에 의붓아버지와 의붓형제 밑으로 들어간 부인의 남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함께 잘사는 길, 수행에 매진하면 보일거예요”

관상으로는 여는 가정과 닮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 셋이 다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특별히 속을 썩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남편의 사업도 계속 변창해서 지금은 내외가 다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여가를 즐길 만큼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가족 모두가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투 때문인데, 암투의 뿌리는 경쟁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삼남매는 아주 어려서부터 서로를 마치 타도해야 할 적처럼 생각하면서 경쟁을 벌여 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학교성적은 늘 상위 그룹에 속했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가 받은 상처는 너무도 크다고 했습니다. 아니, 서로가 받은 상처가 큰 게 아니라 서로 상처가 크도록 조종을 당해 온 고통이 너무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오다보니 아이들은 저마다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형제는 물론 부모들까지 왕래를 못하도록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터득한 남편은 자신의 인생을 경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몰고 왔다 합니다. 그 덕분에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수한 환경이었으니까 남편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이에요. 남편은 아이들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경쟁심에 불타있으면 패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가슴속도 아버지처럼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절에 다니면서 삼독심에 대한 법문을 듣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진심(眞心)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불행의 뿌리는 이렇게 가지를 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답을 해줄까? 속으로 궁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군요. 그리고 나면 보살님 자신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녹두죽

쌀1컵, 녹두 2컵, 소금 약간
1. 쌀은 씻어 물에 2시간 이상 불린 후 물기를 뺀다. 녹두는 10배 정도의 물을 붓고 1시간 이상 푹 무를 때까지 삶은 후 물을 부어가면 체에 걸러 체에 남은 겉질은 버리고 거른 것은 그대로 두어 양념은 가

리았한다.
2. 냄비에 불린 쌀을 넣어 나무 주걱으로 가끔 저으면서 끓인다. 쌀알이 완전히 퍼지면 녹두 양념을 넣어서 잘 어우러지게 끓여 소금으로 간한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 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가정용 촛대



불상을 모신 불단에는 어김없이 놓여 있는 촛대.

부처님에게 바치는 촛불 공양은 단순한 등불 공양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3독(毒)을 없애고자 기원이 담긴 것이다. 때문에 향토와 화병 그리고 촛대

삼독 없애고 기원 받으세요

를 일러 불단 삼구족이라 한다. 늦춰서 만든 ‘가정용 촛대’는 2개 한 세트가 크기에 따라 3만원~5만원이다. (02)732-1520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중)

■不立文字 直指人心

직장상사로 인해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김택수였다. 상사는 김택수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다. 남편은 구청 위생과에 근무해 밤이나 낮이나 위생업소 단속을 다녔다. 나중에 알고보니 김택수는 사는 곳도 일정치 않고 직업도 없는 ‘날건달’이며 경마 도박꾼이었다. 남편에게는 고향 후배라며 ‘형님 형님’ 하며 잘 때렸다. 젊은 놈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갖가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가리봉동에 관음은 단란주점이 있는데 신분이 확실해야 세를 주니까 형님(남편을 지칭)이 계약을 해서 동업하자고 제의했다. 형님은 공작지니 형수님 명의로 같이 공장을 해 놓자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이름만 빌려주고 가게에 나를 필요조차 없으며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의 60%를 매달 우리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고 했다.

평생 집과 직장만 오갔던 남편의 시야가 좁았던 탓일까. 남편은 김택수 제의대로 따랐다. 몇 개 은행의 카드 가맹을 내 명의로 하여 내주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었는데 김택수는 점점 집세도 밀리고, 세금 탈세에다 미성년자 고용 등 위반은 있는 대로 저

질렀다. 또 돈만 생기면 경마 도박으로 날리고, 우리에게 한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결국 명의를 빌려준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금까지도 일체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반칙 분담한 가게 보증금도, 김택수에게는 돈이 없어 남편이 보증을 서 은행대출을 받아 주었으니 결국은 우리 돈이 다 들어간 것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인과응보는 한 치 어긋남이 없는 진리이다. 어렵게 어렵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대출받아준 원금만 간신히 건졌다. 그런데 김택수는 천이백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도리어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김동난(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나 보다”고 둘러댔는데 그 사람은 “관찰을 겁니다. 관찰했죠?” 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 웃음이 남편에 대한 패배주의의 서곡이었다.

차에서 조조하게 기다리던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되려 욕을 했다. 나는 속으로 ‘남편이 직접 들어가서 ‘박봉에 먹고살러다 이렇게 되었다... 수고로 하신다’ 했으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사기꾼에 속은 남편 ‘수뢰죄’ 뒤집어써

막막하던 중 대행스님 친견기회 가져

그러나 고집스런 남편에게 늘 지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은 고집이 무척 세다. 마누라 말은 잘 안 듣는 반면, 남의 말에는 솔깃하기 일쑤다. 성격 또한 깔끔하면서도 보수적이고, 잔소리가 많다.

당시 난 한 마음선원에 다닌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처음으로 주인공자리를 이해 못 했다. ‘불립문자 직지인심(不立文字 直指人心)’ 보다는 교리를 알고 싶었기에, 또 부처

님이 좋고 산사가 좋아 찾아다니던 중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관음회 신도를 만났다. 20대 초반에 몇 개월 다니던 단체이기도 하다. 관음회에서 법화경을 배웠는데 매우 환희심이 났다. 남편도 나의 불법 공부에 적극 협조해 주어 한결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 오랜 세월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니 참 복이 많은 사람임을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불자임을 밝히고 포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날, 같이 공부하던 한 보살이 한 마음선원에 와서 선(禪)공부 좀 하라고 권했다. 나보다 나이가 위어서 형님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그 보살은 선원을 자제하게 소

혹시라도 나를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하는 일 없게 해” 하며 훗날 법정시비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머리를 스쳤다. 당시 공작에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아서 해 하면서도 내키지 않았던 그 자리가 주인공자리인 것을...

이런 저런 상념에 젖으며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행듯 큰스님 친견을 떠올렸다. 말로만 들던 대행 큰스님 친견을 하면 살 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급했다. 만안구에 사는 형님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안된다든 마음을 갖지 않고 ‘주인공, 되게 해’ 하며 긍정적이고 지극한 마음을 내고자 했다. 밤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참회기도를 올렸다. 다음날 아침 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다시 백팔배 참회기도를 올리고 안양 한 마음선원에 갔다. 이미 주지 스님 방에는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 각기 딱 한 사정을 말씀드리며 큰스님 법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도 긴장된 목소리로 내 사정을 말씀드렸다. 이윽고 대행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계속)



그림·김홍인